

## 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관계가 우울 / 불안, 위축행동,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 교사지지, 친구지지의 조절효과

김성수\*

대구가톨릭대학교 박사과정

본 연구는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갈등, 가족유대감의 가족관계가 우울/불안, 위축행동,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부모갈등과 가족유대감이 우울/불안, 위축행동,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교사지지와 친구지지가 조절효과를 보이는가를 검증하고자 시도되었다. 이를 위해 경상북도 인구 20만 명이상 4곳의 중소도시에 재학 중인 중학생 849명의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SPSS 18.0으로 결과를 분석하였다. 조절회귀분석결과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갈등, 가족유대감은 우울/불안, 위축행동, 공격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사지지와 친구지지는 부모갈등, 가족유대감이 우울/불안, 위축행동,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조절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와 관련해 긍정적 가족관계 형성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학교환경에서 교사지지와 친구지지가 효과적인 작용을 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해주고 있다.

\*주요어 : 청소년 가족관계, 우울/불안, 위축행동, 공격성, 교사지지, 친구지지

---

† 교신저자 : 김성수,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712-060) 대구시 동구 동부로 20,  
Tel : 053-811-2411, e-mail : tjtdn01@nate.com

## 서론

### 연구의 필요성

최근 건강에 대한 개념이 단순한 질병예방이나 치료에서 더 나아가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은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 중 학업문제, 또래집단간의 문제, 부적응문제, 폭력, 자살과 같은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는 최근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이 급속한 변화와 발달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심리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조력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더욱이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전환되는 시기로 신체적 변화와 인지·사고기능의 발달, 정신적·사회적 성숙을 이루는 시기이며, 정서적 불균형 상태나 불안한 현상을 보이거나 사소한 욕구좌절에도 고민하고 방황할 수 있고 급격한 환경과의 상호작용 증가에 따른 결과와 주변 환경의 일방적인 영향으로 인해 경험하는 정서적 불안, 반항, 비행, 부적응이 청소년기 이후 전생애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윤혜미, 박병금, 2005, 재인용) 신체적·정신적 성장에 있어 아주 중요한 발달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의 10명 중 4명은 스트레스와 우울을 경험하고 있으며, 13세~18세 청소년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전체의 41.9%(성인평균 28.7%), 우울감 경험률은 30.5%(성인평균 13.2%), 자살생각률은 18.3%(성인평균 13.5%)로 성인평균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2) 청소년의 정신건강문제가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부에서 실시중인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의 최근 3년간 정밀검진이 필요한 심층평가대상학생의 비율이 13.5%이상을 나타내며 우울, 불안, 대인관계 위축, 분노, 공격성과 같은 고위험군 학생이 지속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의 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다(박영아, 2011).

특히, 청소년기 정신건강과 관련해 성인기 진단되는 정신과적 장애의 상당수가 청소년기 혹은 성인 초기부터 시작되고(Kazdin, 1993), 청소년기 부적응의 징후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이후 성인이 되어서도 심각한 장애로 진전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청소년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접근을 더욱 신중하고 전문적이며 체계적으로 다루어져야 함을(서선주, 1999) 의미한다. 실제 '보건복지부 2011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에서 성인의 2011년 정신질환 1년 유병률이 2006년 보다 7.7%이상 증가한 16%로 나타난 점(보건복지부, 2011)은 청소년 정신건강문제의 심각성과 성인 정신질환과의 관계가 결코 무관하지 않음을 나타낸다.

청소년 정신건강문제는 비행, 공격성 같은 행동화 문제와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데, 이는 청소년의 행동화 문제가 초기에 발견이 어려운 신체증상, 무단결석, 성적저하 등의 우울, 불

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관계가 우울/불안, 위축행동,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 교사지지, 친구지지의 조절효과

안이 방치될 경우 학습장애, 자살, 비행등과 같은 심각한 행동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이다(박진아, 2001; Kandel, Raveis & Davies, 1991). 더구나 선행연구에서도 공격성을 포함한 비행청소년들의 우울 수준이 과거에 비해 뚜렷이 증가함을 보고하며(Domalanta, Risser, Robert & Risser, 2003), 청소년 정신건강과 행동화 문제간의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우울과 공격성은 비행성향 청소년들이 가지는 심리·정서적 특성으로 비행행동을 예방하고 비행행동의 효과적인 감소를 위해서라도 우울과 공격성의 적절한 통제가 선행되어야 한다.(신현숙, 이경성, 이해경, 신경수, 2004; 이해경, 김혜원, 2000; 천성문, 이영순, 이현림, 2000). 더욱이 청소년기 우울증상은 학업수행, 가족 및 또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사회적 기능 손상을 초래할 위험성을 높이고 이에 따른 사회적 고립은 사회적 기술 습득을 방해하게 되고, 사회적 기술의 결핍은 다시 우울, 불안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하은혜, 오경자, 송동호, 강지현, 2004). 이러한 청소년기 우울, 불안, 위축과 같은 정서적 문제는 행동적으로 쉽게 눈에 띄는 외현화 문제와 달리 외적으로 두드러지지 않기 때문에 향후 반항적 행위, 약물남용, 학습문제, 학교생활부적응, 과잉행동 등 외현화 문제들에 영향을 미치는 등 더 큰 문제로 나타나기도 한다(박은정, 2005; 배주미, 2000; Rohde, Clake, Mace, Jorgensen & Seeley, 2004).

한편, 난폭하거나 무책임한 행동을 통해 타인을 고통스럽게 하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나타내는 것을 일컫는 공격성은 품행장애의 한 진단기준이지만 외현적인 행동문제 뿐만 아니라 의도된 동기와 같은 내면적인 것까지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외현적 행동, 언어적·비언어적 행동, 사고 및 정서를 포함하여 고려되어야 한다(곽금주, 1992; 배재현, 최보가, 2006; 윤완기, 1994). 비행성향 청소년의 정서적 특성중 하나이기도 한 공격성은(Kastner, 1998; Van Manen, Prins & Emmelkamp, 2004), 집단괴롭힘 가해행동의 중요한 예측요인으로 권위 인물에 반항적이고 분개를 잘하며, 적개심이 높고, 파괴적인 모습의 특징을 가진다(이해경, 김혜원, 2000).

이러한 공격성은 청소년시기 자신들의 욕구가 거부되거나 억압되었을 때 느끼는 분노, 반항, 좌절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심리적 압박감, 내적갈등, 불안이 더욱 가중되어 공격적 행동으로 표출되기 쉽다(김정민, 박준희, 한경은, 2007). 즉 청소년시기 성장과정에서 가족 내에서 습득한 부정적 의사소통기술과 부적절한 대처방식이 심리적 부적응 상황에 공격적 행동과 같은 부정적 대처방식을 사용하는 결과를 낳게 되며, 이러한 패턴이 반복될 경우 만성적인 비행에 이르게 된다(김성수, 2011).

서로 간 밀접한 관계가 있는 청소년 우울, 불안, 비행, 공격성 등의 정신건강문제는 특히 가정환경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 이유는 가정환경은 자녀의 성장 발달에 영향을 주는 대부분의 조건이 부모와 자녀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되는 곳으로, 자녀의 인성을

형성하고 성인으로 성장한 이후에도 대인관계와 사회관계 전 영역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전효성, 이귀옥, 2002).

특히, 부모간의 갈등 즉, 신체적·심리적 폭행, 이혼, 별거 등의 상황은 성장기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노지형, 손형우, 2007). 그 이유는 청소년은 1차적인 역할모형인 부모의 대인관계 양식을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되는데, 부모 간 갈등상황에서 표현되어지는 공격적인 행동들을 학습한 청소년들이 유사한 갈등 상황에 있어 부적절하게 대처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연진영(1992)의 연구에서 부모의 불화 및 가정의 갈등은 공격성을 포함한 자녀의 반사회적 행동의 주요 요인으로 보고 있으며, 부모간의 불화는 자녀의 공격적 행동뿐만 아니라 성인범죄의 선행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의 갈등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양돈규(1997) 또한 부부의 갈등 정도가 심각할수록 자녀에 대한 부모의 지지는 감소하고, 자녀의 우울 수준 및 문제행동은 증가하여 부부 갈등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이혜수, 정옥분(2004)의 연구에서도 청소년 자녀가 부부갈등을 높게 지각하고 자주 목격할수록 자녀의 공격성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가족환경의 관계적 측면에서 김소야자, 공성숙, 김명아(2000), 원호택(1991)은 부정적인 가족관계가 청소년기 발달과업을 위협하여 불안, 열등감, 긴장 등의 정신건강문제와 음주, 흡연, 약물중독, 성문제 등의 청소년 비행문제를 야기하게끔 하는 큰 위협요인으로 보고하였다. 그리고 노지형(2008)은 가족 내의 부부갈등이 높고 부모의 양육태도를 부정적으로 지각한 청소년일수록 사회불안성향이 높게 나타나며, 부모의 양육태도와 우울과의 높은 관련성을 검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 내 갈등이 높을수록 자녀의 불안과 공포심이 증가된다는 결과로 임성우, 가영희(2007)의 가족응집력과 사회적응 및 불안에 대한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더불어, 김선숙(2005)은 가족의 응집력과 정신건강과의 관계연구에서 응집력이 낮은 경우 적대성과 공격성 그리고 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여 가족 간의 관계가 행동화 문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청소년의 우울/불안, 위축행동,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으로는 청소년이 가족 다음으로 가장 많이 관계하는 교사와 또래가 속한 학교환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는 청소년이 경험하는 긍정적인 교사 및 또래관계가 청소년 정신건강뿐만 아니라 문제행동에 대한 보호요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송미경, 배주미, 2006; 김동배, 권중돈, 2005; 김효순, 2009).

특히, 교사지지는 청소년이 학교생활에 투입하는 시간을 고려할 때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학생들에 대한 교사의 기대와 행동은 청소년의 학교생활과 학교관련 활동에 많은 영향을 미

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관계가 우울/불안, 위축행동,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 교사지지, 친구지지의 조절효과

치게 된다(부정민, 2007). 더구나 교사는 학생에게 지식 전달자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지지자로서 부모를 대행하기도 하며(한성철, 2008), 긍정적이고 안정적인 지지를 통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보호요인으로 작용하고(송미경, 배주미, 2006) 심리적 위축, 사회적 미성숙과 스트레스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노숙영, 1998; 김선희, 2000).

교사지지와 함께 친구지지 또한 청소년기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청소년 스스로의 수용과 타인의 수용, 인정을 받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이정미, 2005). 친구지지는 또래 친구들과 사회적 관계를 맺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즐거움, 친밀감, 심리적 안정감, 사회성 발달 등 긍정적 자원을 포함하는 것으로(소영원, 2006), 이미애, 정희옥(2004)은 친구의 긍정적, 부정적 지지는 미래 청소년기와 성인기의 대인관계나 적응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며 친구지지가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청소년기는 친구와의 친밀한 우정과 정서적 관계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기로 부모나 형제 등의 비자발적인 관계와는 달리 자발적인 상호 의존적 관계가 형성되는 새로운 시초로서, 부모로부터 제공받는 사회적 지지와는 다른 성질의 지지를 제공받는 중요한 시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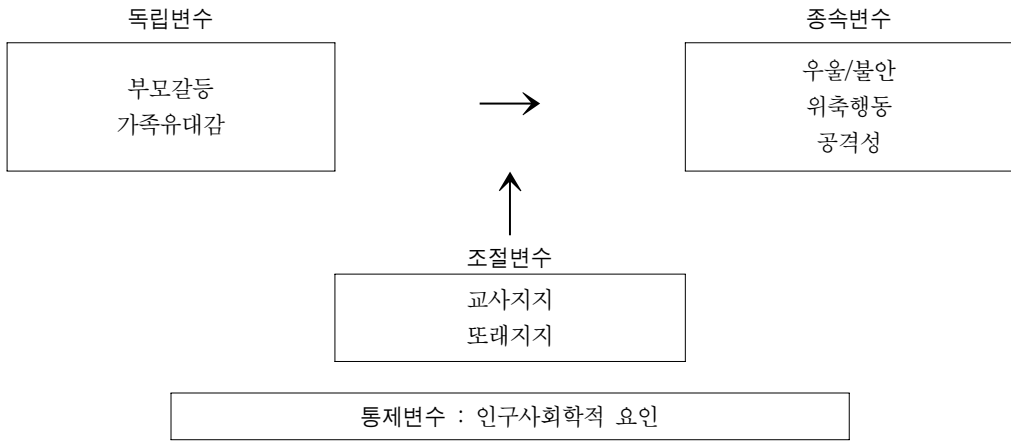
이와 관련해 장선희, 이미애(2010)는 교사, 친구지지와 청소년의 스트레스, 우울, 자살 간의 상호작용 검증을 통해 완충효과를 보고하였으며, 김순규(2008)는 교사와 친구를 포함한 사회적 자원이 청소년 우울과 관련한 자살에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하여 청소년의 다양한 부적응에 대한 보호요인으로 교사와 또래의 사회적 지지가 가지는 조절효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부모 간 불화에 따른 갈등적 가족관계는 자녀에게도 갈등적인 상황과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각종 부적응을 초래하며, 가족성원간의 갈등과 역기능적 상호작용에 따른 부정적 관계인식 또한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행동화 문제에 위험요인으로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청소년 정신건강과 관련해 있어 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의 내적 요인을 중심으로 단일차원에서 접근하였다는 점(김범수, 2010; 김진주, 2012)과 가족관계에서도 일반적인 가족환경 또는 양육태도, 의사소통과 같은 기능적인 요인의 효과를 규명(김태현, 이영자, 2005; 최옥순, 2004)하는데 집중되어 있어 청소년관련 실천현장의 면접과정에서 파악되는 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과 부모 간 관계가 내·외적인 정신건강 위험요인으로서 미치는 효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청소년이 가족에 이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환경을 중심으로, 교사와 친구지지체계를 보호요인으로 함께 다루는 조절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이 지각하고 인식하는 부모갈등과 가족구성원간의 관계가 최근 청소년 정신건강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우울, 불안, 위축행동,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정도를 확인하고 교사, 친구지지의 조절효과 검증을 통해 청소년기 긍정적이고 건강한 성장을 위

한 예방, 개입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연구자료로 도움을 주고자 한다. 그에 따른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 방 법

### 연구대상

본 연구는 경상북도의 인구 20만 명이상 중소도시를 기준으로 하여 포항, 구미, 경주, 경산 소재의 중학교 1~3학년에 재학 중인 남녀 청소년 890여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설문조사는 지역의 학교를 중심으로 비확률표집 중 유의표집을 통해 남녀공학 3개교, 남자중학교 2개교, 여자중학교 1개교로 선정 하였으며, 지역별로 포항 2개교, 구미 2개교, 경주 2개교, 경산 1개교로 총 7개교 선정하였다. 학급의 선정은 학교의 내부사정에 따라 학교에서 의뢰받은 담임교사, 전문상담교사, 교육복지사가 선정하도록 하였으며, 설문지 배포는 해당 학교 관계자의 동의를 통해 사전 연구목적에 대해 충분히 이해된 담임교사 및 전문상담교사, 교육복지사의 지도아래 학생들이 자기기입식으로 작성한 후 수거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설문 조사는 총866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수거된 설문지 중 질문에 응답하지 않았거나 구체적이지 않고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17부를 제외 한 849부를 연구의 최종자료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일반적 특성은 남자가 463명(54.5%), 여자가 386명(45.5%)이고, 학년은 1학년이 410명(48.3%)으로 가장 많았으며, 2학년이 305명(35.9%), 3학년이 134명(15.8%)순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주관적인 경제수준은 하류층이 25명(2.9%), 중하류층 107명(12.6%), 중류층 505명(59.5), 중상류층 181명(21.3%), 상류층 31명(3.7%)로 나타났다.

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관계가 우울/불안, 위축행동,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 교사지지, 친구지지의 조절효과

## 측정도구

### 우울/불안, 위축행동, 공격성

청소년의 우울/불안, 위축행동, 공격성을 측정하기 위해 Achenbach(1991)이 개발한 아동 행동평가척도(Child Behavior Checklist : CBCL)를 오경자, 이해련, 홍강의, 하은혜(2001)가 표준화한 자기보고형척도(Korean Youth Self-Report : K-YSR) 중 내재화 문제행동의 우울/불안, 위축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의 공격성 문항을 선정하여 사용하였다.

우울/불안은 불안이나 긴장, 초조, 걱정과 관련되어 나타나는 행동으로 총 16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척도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alpha$ 는 .88이다.

위축행동은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거나 혼자만의 생각에 빠지는 등의 행동성향을 말하는 7문항으로 척도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alpha$ 는 .81이다.

다툼이나 싸움을 자주하며, 나의 물건이나 남의 물건을 부수는 등 공격행동, 싸움, 반항행동에 대한 공격성은 19문항으로 척도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alpha$ 는 .93이다.

### 부모갈등

부모갈등 척도는 Straus(1979)가 개발한 갈등해결척도 (Conflict Tactics Scale)를 활용한 부정민(2007)의 연구에서 그 신뢰성이 검증된 척도로 부모님간 다툼일 때 욕을 하거나 물건을 부수거나 던지는 행동 또는 밀치거나 떠미는 것과 아버지, 어머니간의 폭력행동에 대한 내용 등의 5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의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의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간의 갈등의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부모의 갈등 신뢰도 계수 Cronbach's  $\alpha$ 는 .88로 나타났다.

### 가족유대감

가족유대감은 가정의 심리환경을 위해 송인섭, 이훈구(1979)가 개발한 검사도구의 일부를 사용한 김문정(2001)의 심리환경 측정도구 중 반의숙(2009)이 활용한 가족유대감 영역을 사용하였으며, 각 문항은 가족이 함께 보내는 시간의 양, 서로대화를 나누는 정도, 가깝다고 느끼는 확신의 정도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로 구성된 5문항으로 온가족이 함께 놀러가기도 한다는 문항만을 역채점 하였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유대감이 좋지 않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가족유대감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alpha$ 는 .72로 나타났다.

### 교사지지

교사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Straus(1979)가 개발한 사회적 지지척도 가운데 교사의 사회적 지지 부분을 활용한 부정민(2007)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선생님이 주의 깊게 살피는지, 질문할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지, 인격적으로 존중, 인정하는지, 하는 일에 대한 지도, 문제해결에 정보를 제공하는지, 관심분야에 대해 함께 시간을 마련하는지, 객관적인 평가를 하는지, 칭찬과 지지 등에 대한 9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의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의 점수가 높을수록 교사지지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교사지지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alpha$ 는 .91로 나타났다.

### 친구지지

친구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Nolten(1994)이 개발한 사회적 지지 척도 가운데 친구의 사회적 지지부분을 활용한 부정민(2007)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친구들의 관심과 정서적, 시간적 공유, 역할의 지지, 공감부분, 긍정적 표현과 피드백 등의 9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의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친구지지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친구지지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alpha$ 는 .92로 나타났다.

### 자료분석

본 연구의 연구문제 검증을 위해 설문조사를 통해 수거된 자료를 SPSS 18.0을 사용하여 신뢰도 분석, 기술통계분석, 상관관계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결 과

### 부모갈등, 가족유대감이 우울/불안, 위축행동,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과 교사, 친구지지의 조절효과 검증

#### 연구모형 검증

표 1은 본 연구에 포함된 각 변수인 부모갈등, 가족유대감과 교사지지, 친구지지의 상호작용효과를 파악하기 전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확인하기 위한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이다.

주요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사지지와 친구지지가 .39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부모갈등과 가족유대감이 .22, 가족유대감과 친구지지가 -.18, 가족유대감과 교사지지가 -.13, 부모갈등과 친구지지가 -.13, 부모갈등과 교사지지가 -.06으로 나타났다. 이



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관계가 우울/불안, 위축행동,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 교사지지, 친구지지의 조절효과

처럼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모두 .40 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1> 주요변수들 간 상관관계

구분	부모갈등	가족유대감	교사지지	친구지지
부모갈등	1			
가족유대감	.22***	1		
교사지지	-.06*	-.13***	1	
친구지지	-.13***	-.18***	.39***	1

\* $p < .05$ , \*\*\* $p < .001$

청소년의 우울/불안, 위축행동, 공격성에 대한 부모갈등, 가족유대감과 교사지지, 친구지지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고자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변수들간의 다중공선성의 문제해결을 위해 평균중심화(Zero-centering)를 통해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였다.

먼저 우울/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갈등, 가족유대감과 교사지지, 친구지지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2와 같다. 1단계에서는 청소년 우울/불안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갈등, 가족유대감을 각각 독립변수로 투입한 결과 모형적합성은  $F = 42.58(p < .001)$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으며, 모형의 설명력은 8.9%로 나타났다. 우울/불안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면 부모갈등이  $\beta = .16(p < .001)$ 으로 나타났으며, 부정적 가족관계를 의미하는 가족유대감이  $\beta = .21(p < .001)$ 로 나타나 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관계에 부모간의 불화와 갈등이 존재하거나 가족 간 정서적인 유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정적인 관계가 유지될 경우 우울/불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는 1단계 투입된 변수들과 함께 교사지지, 친구지지를 투입한 것으로 모형적합성은  $F = 23.19(p < .001)$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으며, 모형의 설명력은 1단계보다 0.6% 증가하여 9.5%로 나타났다. 부모갈등과 가족유대감은 각각  $\beta = .15(p < .001)$ ,  $\beta = .20(p < .001)$ 로 영향을 미치며, 친구지지는  $\beta = -.08(p < .05)$ 로 우울/불안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관계에서 부모갈등이 존재하고 가족유대감이 부적절하며, 친구지지 수준이 적을수록 우울/불안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3단계에서는 2단계에 교사지지, 친구지지의 상호작용항을 위계적으로 투입한 것으로 교사지지의 모형적합성은  $F = 20.21(p < .001)$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으며, 모형의 설명력은 2단계보다 0.7% 증가하여 10.2%로 나타났으며, 친구지지의 모형적합성은  $F = 20.83(p < .001)$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으며, 모형의 설명력은 2단계보다 1% 증가하여 10.5%로 나타났다. 모형 검증결과 교사지지는  $\beta = -.09(p < .01)$ , 친구지지는  $\beta = -.10(p < .001)$ 로 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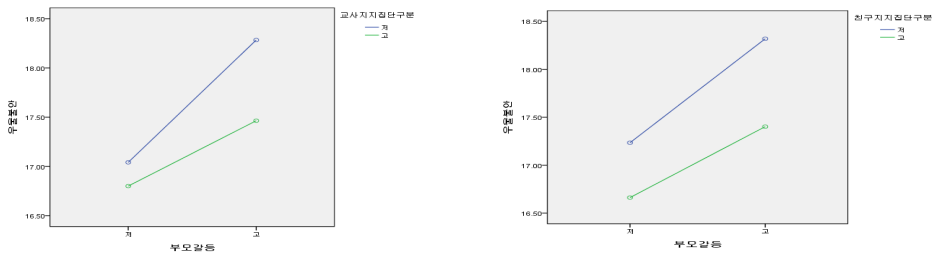
소년이 지각하는 부모갈등과 우울/불안과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사지지와 친구지지가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가지며, 교사와 친구의 지지가 있을 경우 부모갈등이 있더라도 우울/불안에 미치는 영향이 더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2> 가족갈등, 가족유대감과 우울/불안의 관계에서 교사, 친구지지의 조절효과

구분	변인	B	$\beta$	t	R <sup>2</sup>	$\Delta R^2$	F
모델 1	부모갈등(A)	.12	.16	4.98***	.089		42.58***
	가족유대감(B)	.24	.21	6.44***			
모델 2	부모갈등(A)	.11	.15	4.73***	.095	.006*	23.19***
	가족유대감(B)	.22	.20	5.90***			
	교사지지(C)	-.008	-.01	-.44			
	친구지지(D)	-.04	-.08	-2.26*			
모델 3	A×C	-.01	-.09	-2.75**	.102	.007**	20.21***
	A×D	-.01	-.10	-3.22**			

\* $p < .05$ , \*\* $p < .01$ , \*\*\* $p < .001$

조절효과의 분석결과와 관련해 교사지지와 친구지지의 조절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부모갈등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나누어 부모갈등과의 상호작용 양상을 그림 2와 같이 제시하였다. 그림 2에서와 같이 부모갈등상황에 따른 우울/불안 수준이 교사지지와 친구지지로 인해 줄어드는 결과는 교사지지와 친구지지가 부모갈등에 따른 우울/불안을 조절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2] 청소년 부모갈등과 우울/불안과의 관계에서 교사, 친구지지의 조절효과

다음으로 위축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갈등, 가족유대감과 교사지지, 친구지지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3과 같다. 1단계에서는 청소년 위축행동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갈등, 가족유대감을 각각 독립변수로 투입한 결과 모형적합성은  $F = 60.35(p < .001)$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으

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관계가 우울/불안, 위축행동,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 교사지지, 친구지지의 조절효과

며, 모형의 설명력은 12.3%로 나타났다. 위축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면 부모갈등이  $\beta = .16(p < .001)$ 으로 나타났으며, 부정적 가족관계를 의미하는 가족유대감이  $\beta = .28(p < .001)$ 로 나타나 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관계에 부모간의 불화와 갈등이 존재하거나 가족 간 정서적인 유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정적인 관계가 유지될 경우 위축행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는 1단계 투입된 변수들과 함께 교사지지, 친구지지를 투입한 것으로 모형적합성은  $F = 34.99(p < .001)$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으며, 모형의 설명력은 1단계보다 1.5% 증가하여 13.8%로 나타났다. 부모갈등과 가족유대감은 각각  $\beta = .14(p < .001)$ ,  $\beta = .25(p < .001)$ 로 영향을 미치며, 친구지지는  $\beta = -.12(p < .01)$ 로 위축행동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관계에서 부모갈등이 존재하고 가족유대감이 부적절하며, 친구지지 수준이 적을수록 위축행동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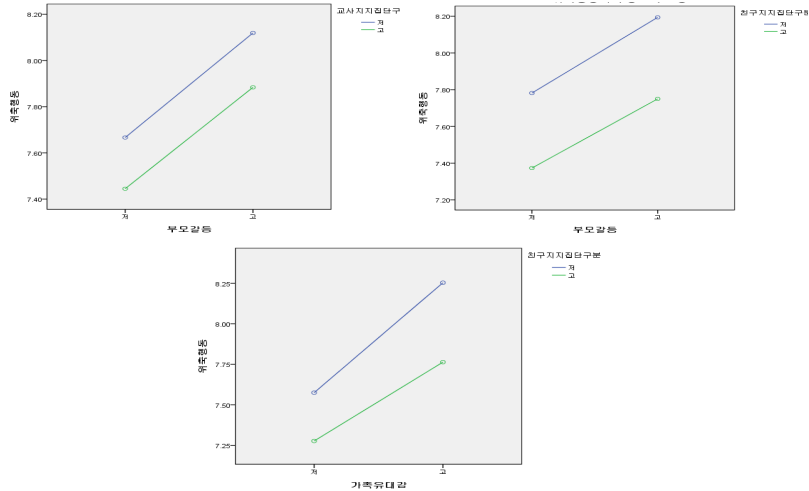
3단계에서는 2단계에 교사지지, 친구지지의 상호작용항을 위계적으로 투입한 것으로 교사지지의 모형적합성은  $F = 29.55(p < .001)$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으며, 모형의 설명력은 2단계보다 0.6% 증가하여 14.4%로 나타났으며, 부모갈등과 친구지지의 모형적합성은  $F = 30.13(p < .001)$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으며, 모형의 설명력은 2단계보다 1.4% 증가하여 15.2%로 나타났다. 모형 검증결과 교사지지는  $\beta = -.11(p < .01)$ , 친구지지는  $\beta = -.09(p < .001)$ 로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갈등과 가족유대감과 위축행동과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족유대감과 친구지지의 모형적합성은  $F = 29.63(p < .001)$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으며, 모형의 설명력은 2단계보다 1.4% 증가하여 14.4%로 나타났다. 즉, 교사지지와 친구지지가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가지며, 교사와 친구의 지지가 있을 경우 부모갈등과 부정적 가족유대감이 있더라도 위축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더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3> 가족갈등, 가족유대감과 위축행동의 관계에서 교사, 친구지지의 조절효과

구분	변인	B	$\beta$	t	$R^2$	$\Delta R^2$	F
모델 1	부모갈등(A)	.05	.16	4.91***	.123		60.35***
	가족유대감(B)	.14	.28	8.47***			
모델 2	부모갈등(A)	.05	.14	4.54***	.138	.015** *	34.99***
	가족유대감(B)	.13	.25	7.70***			
	교사지지(C)	-.005	-.02	-.66			
	친구지지(D)	-.03	-.12	-3.54***			
모델 3	A×C	-.02	-.11	-3.24**	.144	.006*	29.55***
	A×D	-.005	-.09	-3.05**	.152	.014**	30.13***
	B×D	-.005	-.08	-.26**	.144	.014**	29.63**

\* $p < .05$ , \*\* $p < .01$ , \*\*\* $p < .001$

조절효과의 분석결과와 관련해 교사지지와 친구지지의 조절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부모갈등과 가족유대감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나누어 부모갈등, 가족유대감과의 상호작용 양상을 그림 3과 같이 제시하였다. 그림 3에서와 같이 부모갈등과 가족유대감 상황에 따른 위축행동 수준이 교사지지와 친구지지로 인해 줄어드는 결과는 교사지지와 친구지지가 부모갈등과 가족유대감에 따른 위축행동을 조절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3] 부모갈등, 가족유대감과 위축행동과의 관계에서 교사, 친구지지의 조절효과

세 번째로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갈등, 가족유대감과 교사지지, 친구지지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4와 같다. 1단계에서는 청소년 공격성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갈등, 가족유대감을 각각 독립변수로 투입한 결과 모형적합성은  $F = 41.97(p < .001)$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으며, 모형의 설명력은 8.8%로 나타났다.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면 부모갈등이  $\beta = .20(p < .001)$ 로 나타났으며, 부정적 가족관계를 의미하는 가족유대감이  $\beta = .17(p < .001)$ 로 나타나 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관계에 부모간의 불화와 갈등이 존재하거나 가족 간 정서적인 유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정적인 관계가 유지될 경우 공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는 1단계 투입된 변수들과 함께 교사지지, 친구지지를 투입한 것으로 모형적합성은  $F = 21.53(p < .001)$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으며, 모형의 설명력은 1단계보다 0.2% 증가하여 9%로 나타났다. 부모갈등과 가족유대감은 각각  $\beta = .20(p < .001)$ ,  $\beta = .17(p < .001)$ 로 영향을 미치며, 친구지지는  $\beta = -.04(p < .05)$ 로 공격성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관계에서 부모갈등이 존재하고 가족유대감이 부적절하며, 친구지지 수준이 적을수록 공격성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관계가 우울/불안, 위축행동,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 교사지지, 친구지지의 조절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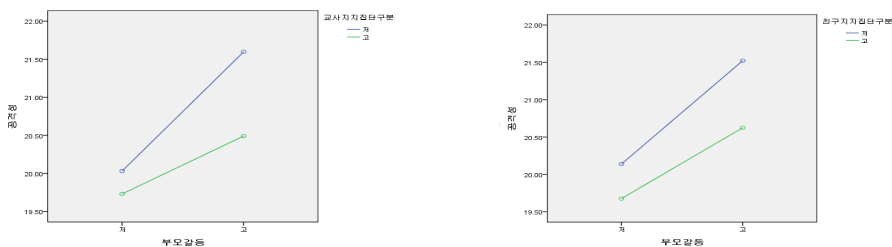
3단계에서는 2단계에 교사지지, 친구지지의 상호작용항을 위계적으로 투입한 것으로 교사지지의 모형적합성은  $F = 19.15(p < .001)$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으며, 모형의 설명력은 2단계보다 0.7% 증가하여 9.7%로 나타났으며, 친구지지의 모형적합성은  $F = 18.62(p < .001)$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으며, 모형의 설명력은 2단계보다 0.4% 증가하여 9.4%로 나타났다. 모형 검증결과 교사지지는  $\beta = -.09(p < .01)$ , 친구지지는  $\beta = -.08(p < .001)$ 로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갈등과 공격성과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사지지와 친구지지가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가지며, 교사와 친구의 지지가 있을 경우 부모갈등이 있더라도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이 더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 가족갈등, 가족유대감과 공격성의 관계에서 교사, 친구지지의 조절효과

구분	변인	B	$\beta$	t	R <sup>2</sup>	$\Delta R^2$	F
모델 1	부모갈등(A)	.16	.20	6.09***	.088		41.97***
	가족유대감(B)	.21	.17	5.30***			
모델 2	부모갈등(A)	.16	.20	5.93***	.090	.002*	21.53***
	가족유대감(B)	.20	.17	4.96***			
	교사지지(C)	-.007	-.01	-.36			
	친구지지(D)	-.02	-.04	-1.17*			
모델 3	A×C	-.01	-.09	-2.97**	.097	.007**	19.15***
	A×D	-.01	-.08	-2.53**			

\* $p < .05$ , \*\* $p < .01$ , \*\*\* $p < .001$

조절효과의 분석결과와 관련해 교사지지와 친구지지의 조절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부모갈등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나누어 부모갈등과의 상호작용 양상을 그림 4와 같이 제시하였다. 그림 4에서와 같이 부모갈등상황에 따른 공격성 수준이 교사지지와 친구지지로 인해 줄어드는 결과는 교사지지와 친구지지가 부모갈등에 따른 공격성을 조절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4] 부모갈등과 공격성과의 관계에서 교사, 친구지지의 조절효과

## 논 의

본 연구는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갈등과 가족유대감이 우울/불안, 위축행동,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부모갈등과 가족유대감이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교사지지, 친구지지가 조절효과를 보이는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갈등이 우울/불안, 위축행동,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청소년기 가족 내 부모 간 부정적이고 공격적 언어표현과 신체적인 다툼과 같은 갈등상황의 노출은 청소년의 우울/불안, 위축행동을 높이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부부간 갈등이 청소년 우울, 긴장, 스트레스와 같은 정신건강과 행동화 문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조운영(2002), 이정미(2005), 김형모 외(2007), 반의숙(2009)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특히, 장재홍, 김현주, 이호준, 김태성(2000)의 연구에서는 부모갈등 시 '내 일처럼 가슴이 아프고 신경이 쓰여서 내가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39.1%가 응답해 부모간의 부정적 관계가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발달뿐만 아니라 또래 및 학교적응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부모갈등에 따른 부정적 영향은 반대로 부모간의 질 높은 관계형성이 이루어지고 부부관계가 좋아진다면 청소년 우울, 부적응, 문제행동 감소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Lee, 1994, 박철웅, 2002).

둘째, 부모갈등과 함께 가족 내 간접적 통제, 의사소통, 주관적 인식 등을 포함한 가족유대감 또한 우울/불안, 위축행동, 공격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와 가족 간 긍정적, 개방적 대화와 적절한 대화시간 유지가 청소년 내재화, 외현화 문제행동에 보호요인임을 검증한 노정화(2002), 김희수(2004), 이성녀(2005)의 연구와 일치하는 것으로 가족유대감 척도의 문항에서처럼 부모님이 집을 비우는 시간이 많고, 가족 간 대화할 시간이 부족하며, 상호관계에 어려움이 존재할 경우 청소년기 심리적 부적응과 불편함을 더 많이 느끼게 되고 또래 및 사회관계에서 심리적 위축과 더 나아가 내재된 갈등으로 인한 공격성도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손석한 외, 2001). 따라서 가족구성원들이 서로에 대해 애정을 가지고 동질성을 가지는 가족애착과 응집력의 향상 그리고 가족 간 정서적 지지가 직·간접적으로 유지될 때 청소년 정신건강과 문제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다(이석형, 2007; 이상균, 2008).

다음으로 교사지지가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갈등, 가족유대감과 우울/불안, 위축행동, 공격성과의 관계에 있어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기 교사가 학생의 심리적 부적응과 문제행동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한 송미경, 배주미(2006), 한성철(2008)의 연구와 그 맥을 같이 한다. 더불어 교사지지를 부모지지와 함께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지지의 한 형태로(부정민, 2007) 비취본다면 사회적 지지가 정신건강문제를 완화한다는 이은희, 조운자(2008), 홍영수(2005)의 연구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청소년기 우울/불안, 위축행동, 공격성

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관계가 우울/불안, 위축행동,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 교사지지, 친구지지의 조절효과

과 같은 정신건강문제에 있어서 학교환경에서 교사의 직·간접적인 지지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즉, 교사지지는 청소년기 직·간접적으로 부모갈등에 노출 되는 상황에서 부정적 가족유대감보다 청소년 우울/불안, 위축행동, 공격성의 조절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며, 부모갈등이라는 가족 내 문제가 우울/불안, 위축행동, 공격성과 같은 다양한 정신건강문제로 이어지는 다중귀결성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 가족적 개입뿐만 아니라 학교 내 보호자인 교사의 적극적 개입이 동시에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친구지지 역시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갈등, 가족유대감과 우울/불안, 위축행동, 공격성과의 관계에 있어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친구지지가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정신건강에 중요한 완충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한 한중혜, 박성욱, 이영환(1997), 홍상욱, 엄경순, 배옥현(2003), Misra, Crist, & Burant(2003)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며, 일상적인 스트레스의 중재요인임을 검증한 이미자(2010)와도 부분 일치하는 결과이다. 즉, 친구의 긍정적이고 정서적인 지지 관계는 부모갈등의 노출과 부정적 가족유대감 문제로 인한 정신건강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청소년기 가족 내 부정적 관계로 인해 내·외적 부적응 문제발생을 줄이고 적응적인 생활을 위해 친구가 학교 환경에서 교사와 더불어 중요한 보호요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이론적, 실천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는 가족의 기능적, 구조적 접근이 아닌 청소년이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부모갈등, 가족유대감의 가족관계가 정신건강에 대한 영역을 행동화 문제까지 확대한 우울/불안, 위축행동,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교사지지, 친구지지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는 점에 의의를 둘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의 결과에서 청소년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가족관계를 중심으로 전반적인 사회적 지지에 대한 조절 효과가 아닌 학교환경에서의 교사지지와 친구지지로 세분화한 조절효과 검증을 통해 청소년 정신건강과 관련한 학교환경에서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는 교사와 친구에 대한 접근과 개입방안을 시사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둘째, 본 연구결과에서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갈등과 가족유대감이 우울/불안, 위축행동, 공격성을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청소년과 부모 그리고 교사를 포함한 청소년 관련 종사자들이 반드시 그 이해의 폭을 넓히고 정신건강 예방을 위한 사전 관리·지원서비스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확인한 가족관계는 청소년이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사항으로 누구나 조금의 관심만 기울인다면 청소년을 통해 가족관계에서의 갈등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가정과 교육현장 등에서 청소년이 인식하고 있는 가족관계의 위험요인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지속적인 관찰과 확인이 청소년으로 하여금 전반적인 생활 등에 간섭과 제한으로 여기지 않게 할 수 있고 긍정적인 관심임을 인식 시킬

수 있는 기술들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만약 이러한 관심 등을 통해 부정적 가족관계로 인한 어려움을 확인하였다면 청소년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한 적극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응체계가 마련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는 청소년을 위한 많은 교육, 상담, 보호시스템이 청소년이 심각한 수준의 문제를 나타내었을 때 대처하는 현 지원서비스의 변화가 필요함을 시사하며,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한 성장을 방해하는 위험요인에 있어 적극적인 관리·지원서비스의 제공은 정신건강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자칫 청소년과 그 가족문제의 방조로 인해 만성화되어 나타날 수 있는 반사회적 인격장애(소시오패스)와 같은 사회 부적응 문제 등을 예방함에 있어서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셋째, 청소년의 가족관계가 우울/불안, 위축행동,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교사지지와 친구지지가 조절효과를 가진다는 점에서 학교현장에서 교사와 친구가 지지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부분은 최근 많은 학교현장에 전문상담사와 전문상담교사 배치와 같은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짧은 기간의 학교사회복지사업, 교육복지사업, Wee Class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전문인력배치 사업이 수시로 변경되고 있고 전문인력 또한 인턴과정 및 계약과정이라는 제한된 신분으로 인해 그 효과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되어지고 있으며, 담임교사들 또한 교과업무 이외의 과도한 행정업무로 인해 적절한 학생관리와 관계형성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학교상담사업에 대한 전문성이 보장되는 사업이 빠른 시기에 정착될 필요가 있으며, 담임교사들이 학생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게 행정지원서비스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친구지지체계 강화를 위해 교육부와 여성부가 실시중인 또래상담사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되어진다. 최근 몇 년간 학교폭력으로 인한 자살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실시중인 이 사업은 학급과 학교 내 또래 간 정서적 지지자를 양성하여 친구지지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이 사업 또한 백 명 이상의 교사를 대상으로 집체교육으로 이루어져 사업운영에 관한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기에 어려움을 가지게 되어 자연스럽게 양성된 또래상담자를 운영, 관리에 있어서도 제한이 따르게 된다. 그리고 전산관리서비스 또한 교육부의 NEIS시스템과 여성부의 CYS-Net시스템이 호환되어 운영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청소년을 중심으로 학교현장과 지역사회가 함께 사업을 연계하여 친구지지체계를 강화하는 사업을 진행한다는 큰 의미를 두고 있는 만큼 훌륭히 양성된 또래상담자가 친구 간 정신건강과 각종 부적응 그리고 문제 상황에 있어 적절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현장운영, 시스템적용 등에 대한 적극적인 변화와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신건강과 관련한 영역에 있어서 우울/불안, 위축행동, 공격성 외에도 다양한 영역이 존재할 것이며, 조절효과 또한 교사·친구지지 뿐만 아니라 개인적, 가족적, 사회·환경적



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관계가 우울/불안, 위축행동,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 교사지지, 친구지지의 조절효과

요인 등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관련한 다양한 보호요인과 조절요인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좀 더 구체적이고 통합적인 예방, 개입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대상을 경상북도 청소년으로 제한시킴으로써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전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이루어 질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박금주 (1992). 공격영화시청이 아동과 청소년의 사회정보처리과정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2). 제8차(2012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통계.
- 김동배, 권중돈 (2005). 인간행동이론과 사회복지실천. 서울 : 학지사.
- 김문정 (2001). 가출청소년의 비행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가출청소년을 대상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범수 (2010). 청소년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 변인에 관한 연구: 우울과 불안을 중심으로. 한영신학대학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선숙 (2005). 가족응집력과 취학 전 아동의 사회정서적 적응행동 및 행동문제와의 관계.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선희 (2000). 학령기 아동의 행동문제 유형에 따른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인과모형 탐색.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성수 (2011). 청소년의 내재화와 외현화 문제행동에 관한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소야자, 공성숙, 김명아 (2000). 청소년의 약물남용 실태와 심리적 변인에 관한 연구: 서울 지역 일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정신간호학회지, 9(3), 344-356
- 김순규 (2008). 청소년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29, 66-93.
- 김정민, 박준희, 한경은 (2007). 비행성향 청소년의 우울 및 공격성 감소를 위한 인지행동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4), 31-41.
- 김진주 (2012). 청소년의 스트레스, 부모-자녀의사소통, 우울 및 자살행동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태현, 이영자 (2005).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가족기능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0(3), 177-193

- 김형모, 이숙진, 서해정, 최은정, 김은정, 문순희 (2007). 가정폭력 노출이 청소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18(1), 55-77.
- 김효순 (2009). 청소년기 인터넷 연구 중독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생태체계 요인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희수 (2004). 저소득가정 아동의 비행행동에 대한 환경적 요인들의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노숙영 (1998). 중학생의 학교적응, 학업성취, 정서 및 문제행동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정화 (2002).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지형 (2008).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 및 부모양육태도와 사회불안과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특수치료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지형, 송현우 (2007).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 및 부모양육태도와 사회불안과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심리치료, 7(2), 75-89.
- 박영아 (2011). 2011 학생정신건강 선별검사결과,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박영아 의원 자료집.
- 박은정 (2005). 아동 우울 예방을 위한 인지행동프로그램의 효과.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진아 (2001). 청소년의 지각된 사회적지지 및 자기효능감과 우울간의 관계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철웅 (2002). 부부관계와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반의숙 (2009). 청소년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재현, 최보가 (2006). 남자청소년의 우정관계에서 발생하는 질투정서와 부적응적 정서조절 전략 및 공격성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 87-102.
- 배주미 (2000). 아동 및 청소년의 우울증상과 인지변인의 지속성과 상호예측 : 18개월 추적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보건복지부 (2011). 2011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
- 부정민 (2007). 청소년의 온라인게임 몰입 및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 변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서선주 (1999). 아동의 역량지각과 행동문제. 아동학회지, 20(3), 97-106.
- 소영원 (2006). 초등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스트레스 및 스트레스 대처행동과의 관계.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관계가 우울/불안, 위축행동,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 교사지지, 친구지지의 조절효과

- 손석한, 노경선, 허묘연, 정현옥, 이소희, 김세주 (2001). 청소년 범죄행동 유발요인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 신경정신의학, 40(4), 605-615.
- 송미경, 배주미 (2006). 청소년의 비행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개인, 가정, 학교변인에 관한 연구. 제1회 한국교육종단연구 학술대회 논문집, 193-211.
- 송인섭, 이훈구 (1979). 비행청소년의 사회심리학적 측면. 서울 : 한국행동과학연구소.
- 신현숙, 이경성, 이해경, 신경수 (2004). 비행 청소년의 생활적응 문제에서 우울/불안 및 공격성의 합병 효과와 성차.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16(3), 491-510.
- 양돈규 (1997). 부부갈등과 사회적지지가 청소년의 우울과 비행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연진영 (1992). 아동학대의 실태 및 영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오경자, 하은혜, 홍강의, 이해련 (2001). K-YSR 청소년 자기행동평가척도. 서울 : 중앙적성연구소.
- 오은주 (2010). 청소년을 위한 우울예방 프로그램이 우울, 자살생각, 역기능적 태도 및 부정적 자동화사고의 감소에 미치는 효과.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원호택 (1991). 청소년 범죄행동 유발요인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윤완기 (1994). 부모의 체벌과 아동의 공격성과의 관계.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혜미, 박병금 (2005). 청소년의 내재화와 외현화 문제행동 관련요인 : 생태체계적관점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28, 133-164.
- 이미애, 정희옥 (2004). 아동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간의 관계. 목포대학교 교육연구소, 16(17), 123-136.
- 이미자 (2010). 초등학교 아동의 학업스트레스, 자아탄력성, 사회적 지지와 학교적응과의 관계 및 조절효과 탐색.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상균 (2008). 청소년 비행행동의 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과 위험요인. 사회복지연구, 39(1), 315-342.
- 이석형 (2007). 청소년비행 보호요인에 관한 타당성 연구. 청소년학연구, 15(1), 223-246.
- 이성녀 (2005). 가족의 구조적 특성이 청소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희, 조윤자 (2008). 청소년 자살의 심리적 과정 및 문제해결력과 사회적 지지의 보호효과. 사회연구, 16, 105-143.
- 이정미 (2005). 미시체계적 관점에서 본 청소년 전환기 문제행동-가정 및 학교환경을 중심으로.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해경, 김혜원 (2000). 집단괴롭힘의 가해와 피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심리적 변인들.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14(1), 45-64.
- 이혜수, 정옥분 (2004).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과 청소년의 공격성과의 관계. 한국

- 가정과교육학회지, 16(1), 46-62.
- 임성우, 가영희 (2007). 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응집력과 사회적응력 및 불안과의 관계. 한국 청소년시설환경학회, 5(1), 29-39.
- 장선희, 이미애 (2010). 청소년 자살생각 관련 요인 연구: 사회적지지 및 자아존중감의 완충 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7(8), 27-55.
- 장재홍, 김현주, 이호준, 김태성 (2000). 가족상담 연구개발 4 : 청소년기 가족문제와 가족상담의 방향. 청소년상담연구, 82.
- 전효성, 이귀옥 (2002). 유아기 부모와의 애착경험이 청소년기 또래애착과 스트레스 인식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9(2), 191-210.
- 조윤영 (2002). 아동이 지각한 부모갈등과 부모양육태도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천성문, 이영순, 이현림 (2000). 신경증적 비행청소년의 분노조절을 위한 인지행동적 집단치료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12(1), 53-82.
- 최옥순 (2004). 중학생의 개인적 특성, 가정 및 학교 환경과 정신건강과의 관계.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하은혜, 오경자, 송동호, 강지현 (2004). 우울장애와 불안장애 청소년을 위한 집단 인지행동 치료 효과의 예비연구.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23(2), 263-279.
- 한성철 (2008). 청소년학-청소년 이해와 지도. 서울 : 학지사.
- 한종혜, 박성욱, 이영환 (1997). 친구, 가족, 교사의 사회적지지 및 자아가치감에 따른 아동의 스트레스. 한국생활과학학회지, 6(1), 1-13.
- 홍상욱, 엄경순, 백옥현 (2003). 현대 가족에서의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사회적지지. 한국가족관계학회지, 8(1), 139-155.
- 홍영수 (2005). 청소년 생활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및 사회적 지원의 완충효과. 임상사회사업연구, 2(1), 249-272.
- Achenbach, T. M. (1991). *Integrative guide for the 1991 CBCL/4-18, YSR and TRF profiles*. Burlington, VT : University of Vermont.
- Canetti, L., Bachar, E., Galili-Weisstub, E., De-Nour, A. K., & Shalev, A. Y. (1997). Parental bonding and mental health in adolescence. *Adolescence*, 32(126), 381-394.
- Domalanta, D. D., Risser W. L., Robert, R. E., & Risser, J. M. (2003). Prevalence of depression and other psychiatric disorders among incarcerated youths. *J Am Acad Child Adolesc Psychiatry* 42(4), 427-484.
- Kandel, D. B., Raveis, V. H., & Davies, M. (1991). Suicidal ideation in adolescence : depression, substance use, and other risk factor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관계가 우울/불안, 위축행동,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 교사지지, 친구지지의 조절효과

20(2), 289-309.

- Kastner, J. W. (1998). Clinical change in adolescent aggressive behavior : A group therapy approach. *Journal of Child and Adolescent Group Therapy, 8*(1), 23-33.
- Kazdin, A. E. (1993). Adolescent mental health: Prevention and treatment programs. *American Psychologist, 48*(2), 127-141.
- Lee, C. D. (1994). Psychological, social and school adjustment of children in the expedited visitations services. Ph. d. dissertation. Arizona State University.
- Misra, R., Crist, M., & Burant, C. J. (2003). Relationship among life stress, social support academic stressors and reactions to stressors of international student in 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Journal of Stress Management, 10*(2), 137-157.
- Nolten, P. W. (1994).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of social support: The development of the student social support scale*.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 Rohde, P., Clarke, G. N., Mace, D. E., Jorgensen, J. S., & Seeley, J. R. (2004). An efficacy/effectiveness study of cognitive-behavioral treatment for adolescents with comorbid major depression and conduct disorder. *J Am Acad Child Adolesc Psychiatry, 43*(6), 66-668.
- Straus, M. A. (1979). Measuring intrafamily conflict and violence: The conflict tactics(CS) scal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1*(1), 75-88.
- Van Manen, T. G., Prins, P. J., & Emmelkamp, P. M. (2004). Reducing aggressive behavior in boys with social cognitive group treatment: result of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J Am Acad Child Adolesc Psychiatry, 43*(12), 1478-1487.

[원고접수일: 2013. 08. 31 / 수정원고접수일: 2013. 10. 24 / 게재결정일: 2013. 11. 11]

# **The Influence of Family Relationship Perceived by Adolescents upon Depression / Anxiety, Withdrawn Behavior, and Aggression : Moderating Effect of teacher Support and Friend Support**

Kim, Sung Su

Doctor Course, Dept. of Social Welfare,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This study was attempted in order to verify the influence of the family relationship in parental conflict and family bond perceived by adolescents upon depression/anxiety, withdrawn behavior, and aggression and to verify whether the teacher support and the friend support show moderating effects on the influence of parental conflict and family bond upon depression/anxiety, withdrawn behavior, and aggression. For this, it utilized 849 materials of middle school students who are attending in 4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with more than 200,000 people in population of Gyeongsangbuk-do Province. The results were analyzed by using SPSS 18.0. In consequence of the moderated regression analysis, the parental conflict and family bond perceived by adolescents were indicated to have significant influence upon depression/anxiety, withdrawn behavior, and aggression. Also, the teacher support and the friend support were verified to show the moderating effect on the influence of parental conflict and family bond upon depression/anxiety, withdrawn behavior, and aggression. These findings are showing importance of forming positive family relationship in relation to adolescents' mental health problem and are suggesting that a support is needed in the school environment in order to be effectively functioned the teacher support and the friend support.

*Key words* : Adolescent family relationship, Depression/anxiety, Withdrawn Behavior, Aggression, Teacher support, Friend support